

국권상실기 부산·경남 저항시 연구*

김 경 복**

차 례

- | | |
|------------------------|------------------------|
| I. 서론 | 2. 궁핍한 민중 현실의 고발과 저항의식 |
| II. 국권상실기 부산·경남 저항시 양상 | 3.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투쟁의식 |
| 1. 민족의식의 고취와 독립에의 염원 | III. 결론 |

I. 서론

우리나라의 지난 20세기는 온갖 모순과 질곡에 가득 찬 시기였다. 역사적 근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봉건주의의 잔재, 근대화를 타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한 일본제국주의의 침탈, 또 해방 후 미군과 소련의 진주로 인한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과 불완전한 민족국가 수립, 그로 인한 전쟁의 발발과 분단체제의 고착,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군부독재와 개발독재의 횡행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적 고통과 폐해를 보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사적 질곡의 본질은 독점 자본주의의 화신인 제국주의의 침탈에 따른 식민과 종속의 삶

* 이 논문은 『작가사회』, 2003년 겨울호에 자료 중심의 해설로 발표된 「부산·경남 항쟁시의 사적 전개」의 글을 국권상실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적 규명과 전거를 밝혀 하나의 논문으로 완성한 것임을 밝혀둠.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데에 있다. 김윤식이 지적한 대로 우리 근대문학은 근대화의 추구라는 보편적 목적성을 띠고 있는 데다, 제국주의 침탈에 대항하여 민족 자주성을 지켜내야 하는 특수성마저 감당해야 하였던 것이다.¹⁾

따라서 두 가지 당면과제는 20세기를 지나온 우리민족에게는 언제나 시대적 모순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대체로 근대화의 추구는 민주화의 추구라는 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제국주의의 침탈에 대한 응전은 민족모순의 구체로서 독립과 자주성의 문제로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자유와 평등의 문제는 국권상실기나 해방 후 분단체제에 들어와서도 계급모순의 내용이 되는 셈이지만 국권상실기엔 계급모순의 극복이 정작 당시 일제라는 식민체제의 민족모순 극복의 의미를 많이 띤다고 볼 수 있다.²⁾ 독립과 자주의 민족 주체성의 문제는 국권상실기에 생존과 인권 확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 현안으로서 모든 지식인의 절체절명의 과제라 한다면 해방 후와 분단체제에 와서는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건설의 문제로 귀착된다.

20세기 한국이 이러한 시대사적 흐름을 보일 때 그러한 모순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학이 한국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당대의 권위적이고 모순적인 폭압에 대한 자주적, 민주적, 현실적, 지역적 저항을 하는 문학이야말로 가장 20세기 한국사의 중심을 질러간 문학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저항문학³⁾이라 부를 수 있다. 저항문학

1) 김윤식, 『한국 근현대문학사를 다시 써야 되는 까닭』, 『한국현대문학사』(김윤식·김우중 외 공저), 현대문학, 1989, 15-18쪽.

2) 사회주의 운동이 보편적 차원에서는 계급적 모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권상실이라는 민족적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 자연 민족적 억압의 모순을 풀기 위한 실천적 전략의 성격도 띠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89, 11쪽 및 249쪽.

김경복, 『한국 아나키즘시문학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8, 71-92쪽

3) 일반적으로 저항문학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문학에서 그 개념을 잡는다. 그때 저항문학은 점령군에 대한 민족적 민중적 차원의 저항의식이 담긴 문학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일제 침략 이후 민족적 차원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과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문학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임중빈은 저항문학의 특성을 개체의 탈출구를 모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연대성에 대한 굳은

은 앞에서 제기됐던 두 가지 모순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과 함께 작가 역시 당대의 역사적 현실에 사회적 실천을 견지한 경우를 일컫는다.⁴⁾ 모순과 질곡의 민족 현실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가열찬 변혁의지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유와 민주의 민족적 삶을 추동해간 경우의 문학이 바로 그것이다.

그 점에서 특히 국권상실기 역사적 질곡에 대응한 저항시의 사적 전개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 민족 지식인으로서 문학인이 어떻게 현실에 대해 살아왔는지를 살피는 일인 동시에 20세기 최대 화두인 긍정적 근대성 달성의 문제를 살피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도 토착적 현실을 매개로 하는 지역문학을 전제로 하여 살펴볼 때 그것은 더욱 고찰의 구체성과 적실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⁵⁾ 때문에 부산경남이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국권상실기 저항시의 흐름을 조망해봄은 지난 역사의 역동성을 알아봄과 동시 21세기 민족 현실에 어떤 역학으로 지역문학이 대응해야 할지를 예견해주는 의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신념으로써 역사적 공동체의 활로를 마련하는 태도의 문학이라고 본다. 임중빈, 『저항문학의 자세』, 『부정의 문학』, 한얼문고, 1972, 24-35쪽.

저항문학과 관련하여 이를 달리 ‘고발문학’이라 부를 수 있지만 그때는 개념이 좁아드는 느낌이다. 고발위주의 문학은 사회의 불의를 폭로한다는 점에서는 저항문학과 일정한 속성을 같이하지만 행동의 실천성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점에서 참여문학이나 리얼리즘 문학도 마찬가지다. 또 저항문학과 관련한 유사한 개념으로 ‘망명문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대의 체제에 저항하여 그 체제 권역 밖으로 탈출하여 활동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자면 일제 하 망명길에 올라 저항문학을 쓴 경우는 해당되겠지만 국내에서 저항을 지속한 경우는 포함하지 못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빅토르 츠페가치·디터 보르호마이어 공저, 『현대 문학의 근본 개념 사전』(류종영 역), 숲, 1996, 83-98쪽 참조.

- 4) 구모룡, 『근현대 부산·경남지역 항쟁문학사 개괄』, 『작가사회 14호』, 전망, 2003년 겨울, 17쪽.
- 5) 지역문학의 범주와 특징, 그리고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박태일의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지역문학은 그 지역과 인연이 있는 문학으로서 행정경계에 따라 불박혀 있는 이들의 문학이 아니라, 그 지역을 삶의 친밀 영역으로 사랑하고 추억을 가꾸며, 섬기는 이의 문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과 편의라는 허울 아래 지역성을 속결으로 망가뜨리는 제도와 인습을 바로잡는 데 이바지하는 대항문학이야말로 바람직한 지역문학이라는 주장이다.
박태일, 『두류산에서 낙동강에서』,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3쪽.
박태일, 『지역문학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 제2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 참조.

점에서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국권상실기 저항시의 흐름을 일별(一瞥)해 보는 것은 문학사적으로나 민주화 운동 및 지역문화운동의 측면에서도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II. 국권상실기 부산·경남 저항시 양상

한국 근대문학은 역시 개화기 시대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겠으나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에 기반한 본격적인 근대문학 활동은 191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야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근대화의 계몽과 부국자강의 논리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테마로 여겨졌다. 부산 경남 문학도 마찬가지다.⁶⁾ 그 중에서도 사회현실에 대한 사실적 인식과 저항적 관점에 입각하여 문학행위를 한 것은 아무래도 대한제국의 멸망과 관련한 민족의식의 고취와 자강적 독립의식일 것이다. 즉 일제의 1905년 을사조약 이후 국권 침탈의 노골화와 1910년 강제 합병의 식민화로 인해 의병이 발생하고 독립운동이 발생하는 등의 저항 운동 발발이 그것이다. 이때의 저항시는 민족의 주권 수호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인 만큼 유교적 절의 차원에서 전근대적 민족혼을 부르짖거나 부국강병의 내실을 다지자는 관념적 경향을 보인다.⁷⁾

그러다 일제의 지배가 한층 공고화됨에 따라 관념적인 민족의식으로서의 더 이상 현실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자각 아래 일본제국주의가 독점 자

6) 경남문학의 흐름을 고찰한 강희근 교수에 따르면 경남 시단의 시작은 192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전문 문인들이 경남에서 동인지(『참새』 1926, 『新詩壇』1928)를 낸 시기를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어 실증적이나 중앙지에 발표한 지역 작가 작품을 고려한다면 그 시기가 늦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일제 하 동인지 운동 자체가 저항의 수단이었다는 의미 부여라든지, 경남 시단의 출발 성격을 대체로 시대고 내지 저항의식의 시계열, 원초적인 생명의지를 드러내는 시계열, 전통과 낭만에 기초한 서정시 계열 등으로 집약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점은 부산·경남문학 연구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강희근, 『경남문학의 흐름』, 보고서, 2001, 11-103 쪽 참조.

7) 박을수, 『한국 개화기 저항시 연구』, 성문각, 1985 참조.

본주의의 세계적 침탈의 한 현상임을 파악하고 자주적 근대화의 실천적 방식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통한 반제 반자본주의 운동을 펼친다. 즉 민족모순의 실상이 계급모순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주의적 인식으로 무장하여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의 운동을 실천하게 된다. 그 점에서 국권상실기의 저항시의 전개는 관념에서 실천으로, 명분에서 운동으로 전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국권상실기의 저항시를 쓴 부산·경남 시인들은 이운재, 안확, 권환, 김대봉, 김병호, 김상훈, 김정한, 박석정, 박차정, 서덕출, 손풍산, 양우정, 엄홍섭, 이극로, 이원수, 이주홍 등⁸⁾으로 드러나는데, 대체로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에 대항하여 자신의 일생을 보낸 이들로 대략 세 가지 유형의 주제를 보인다. 우선 국권 상실에 따른 저항의식과 민족독립에의 염원을 표방하는 것, 두 번째는 일제 식민 정책에 따른 참혹한 민중 현실을 고발하는 것, 세 번째는 일제의 지배를 부르주아의 지배로 치환하여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으로 혁명을 지향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들의 경계는 엄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논의의 편의상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볼 따름이다.

1. 민족의식의 고취와 독립에의 염원

20세기 초 개신유학에 기초한 진보적 지식인들은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을 꿈꾸나 일제의 침탈로 인해 그 꿈이 좌절되는 것을 느끼자 일제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품는다. 경술국치 이후 대부분 상해나 만주 등지로 망명하면서 독립에 대한 염원을 표출한다. 그것이 의병가나 독립군가다. 일제에 대한 가장 본격적이면서 근원적 저항이 되는 것은 바로 민족의식의 고취와 독립의 염원을 담고 있는 이러한 노래일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과 같은 독립군가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빛나고 영광스런 반만년 역사
광명을 자랑하던 선진국으로

8) 부산경남 저항문학을 썼던 작가들의 전기적 생애는 민주공원 편, 『근현대 부산·경남 항쟁문학 사료집 I -자료집』(구모룡 편저), 한글마당 다크스, 2003을 참조할 것.

슬프다 천만 몽외 오늘 이지경
(후렴) 아 이 부끄럼을 못내 참으리

신성한 한 배 자손 이천만 동포
하늘이 빼어내어 민족이더니
원수의 칼날 밑에 어육됨이어
- 이윤재, <국치가 1> 부분⁹⁾

이 노래는 독립군가¹⁰⁾로 지어진 것이다. “원수의 칼날 밑에 어육”된 민족 현실을 직시하여 부끄러움을 깨우쳐 나가 싸우자는 요지를 갖고 있다. 노래가 갖는 선동성과 단순성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당시의 현실의 민족적 모순에 대응한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문학행동이지만 계몽적 관념성을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노래를 쓴 이는 경남 김해 출생으로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 복역 중 옥사한 이윤재다. 역사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의기(義氣)가 시 안에 충천해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 저항문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 같아 의미심장하다. 이는 경남 김해에서 출생하여 멀리 중국에까지 망명하여 의병활동을 하는 조정환이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슬픔을 노래하는 도중에서도 조국 독립의 염원을 접지 않은 의병한시 <단심가(丹心歌)>¹¹⁾도 이윤재의 <국치가>와 다를 게 없다 하겠다.

이러한 민족의식 고취와 독립염원은 안화와 이극로의 우국 시조로, 그리고 문학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덕출, 이원수, 이주홍의 동시로 계승된다. 가령 서덕출¹²⁾의 “아아白衣의同胞들아/ 한만흔이땅에/ 내리쬐이는/ 太陽의

9) 『독립신문』(1922. 8. 29)

10) 독립군시가의 자료에 대해서는 황선열 편, 『님 찾아가는 길 -독립군시가 자료집』, 한국문화사, 2001, 참조.

11) 원래 한시에는 제목이 붙여져 있지 않으나 시의 첫 구절에 ‘단심(丹心)’이 나오고, 나라 잃은 슬픔과 충정을 노래하고 있어 논자가 <단심가>라 이름 붙였다. 시구는 다음과 같다. 丹心韓日月 白骨漢山川 御却人間事 今朝獨立年. 김경복 편저, 『근현대 부산·경남 항쟁문학 사료집 II-항쟁시』, 한글마당 다큐스, 2003, 1 쪽 참조.

12) 1907년 울산 중구 교동에서 출생.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에게서 한글을 배워 동요를 짓기 시작. 1925년 『어린이』에 <봄편지>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 문단 교우로 윤석중, 윤복진, 신교송 등과 교류하면서 일제 하 민족현실의 부당함에 대한 비판적 동시 창작함.

光線을잘보거든/ 흐터져있는힘을모어라/ 太陽과갓흔힘을모어라”(〈太陽을 보고〉¹³⁾)는 작품은 민족 계몽과 함께 독립의 염원을 태양이라는 상징물로 제시하고 있다.¹⁴⁾ 특히 이원수¹⁵⁾의 〈고향의 봄〉은 그 점에서 우리 민족의 조국 상실이라는 비애를 독립에의 염원으로 전화시킨 좋은 독립군가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립운동전선에 여성의 몸으로 전력을 쏟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옥사한, 약산 김원봉의 아내 박차정 열사의 〈개구리 노래〉는 죽은 언니에 대한 안타까운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데 이 시는 바로 일제 식민지 현실 속의 상실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국 상실의 비애를 함축하고 있다.¹⁶⁾

이러한 민족의식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큰 틀에서부터 구체적 작은 차원의 향토애로 전환시켜 노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법인데, 이 경우 양우정¹⁷⁾의

1940년 사망. 1952년 유고 동시집 『봄편지』~말간.

- 13) 김지은, 『서덕출 동시 발굴자료』, 『지역문학연구』~제3호, 경남지역문학회, 불휘, 1998, 244쪽.
- 14) 김지은은 이 시에서 ‘태양’을 일장기 속 붉은 원, 곧 일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김지은, 『서덕출의 삶과 동시』, 『지역문학연구』~제3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 54쪽)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 같다. 그것은 첫 연의 내용 “한만흔 우리半島에도/太陽은太陽은/그대로쫓는고나”로 볼 때 ‘태양’은 어둠과 추위에 젖은 세계를 구원해주는 자연적 상징물로 보는 것이 옳으며 그런 점에서 민족 독립과 해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 15) 1911년 경남 양산(梁山)에서 출생. 1926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정환이 주재한 『어린이』지에 동요 〈고향의 봄〉이 당선. 1927년 『기쁨사』의 동인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 장편동화와 아동소설의 장르를 개척했고 아동문학 이론을 확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함. 1930년대 접어들면서 발표 무대를 『신소년』, 『별나라』~등으로 옮기면서 현실 직시의 동시 발표. 소극적이거나 불의와 부정에 저항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실에 항거하는 동시 발표. 이하 생략
- 16) 박태일, 『광복열사 박차정의 삶과 문학』, 『지역문학연구』~제1호, 경남지역문학회, 1997, 36-38쪽.
- 17) 1907년 경남 함안군 함안 출생. 본명은 창준(昌俊). 일본 早稻田大 専門學部 경영학과 중퇴. 귀국 후 신간회의 지방지부에 가담하기도 하고 공산주의에 감염되어 농민소작쟁의 등에 참가함. 1928년 카프 중앙위원이 됨. 박영희와 김기진이 사회부장과 문예부장을 맡고 있던 『중외일보』에 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 문단생활을 시작. 1930년 9월 『음악과 시』~편집 겸 발행인. 1930년 12월 카프 기관지 『群旗』~발행(주간). 1931년 무렵 국내공작위원회사건 및 반제동맹사건에 연루되어 피검, 4년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함. 1936년 경남문학청년동맹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1년 간 복역함. 이하 생략.

<낙동강>과 김용호¹⁸⁾의 <낙동강> 장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한 작품이다.

五

(...)

洛東江은七百里

沃野千里엔

낫서른사람들만

모여서드네

십리만석보고는

죄다남주고

이땅의백성들은

다쫓겨가네

에— 해루 흘으는

洛東江물아

언제까지니만은

흘을것이나

- 양우정, <낙동강> 부분¹⁹⁾

내 사랑의 강!

낙동의 강아!

우리들의 설음이 너 함께 얼어붙고

또 다시 너 함께 풀리고

세월은 하나의 밀물이던가

삼십리 밖 읍내의 못보던 경이는

차츰차츰 이곳에도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붉은 기!

18) 1912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 1928년 마산상고 졸업. 1935년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신인문학』지에 시 〈첫여름 밤에 귀를 기울이다〉를 발표하고 작품 활동 시작. 1938년 9월 『사해공론』에 민족의 암담한 상황을 노래한 장시 <낙동강> 발표. 김대봉과 교류하면서 『맥(貊)』 동인에 가입. 1941년 첫시집 『향연(饗宴)』을 동경에서 발행. 12월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전문부 법과 졸업. 1943년 두 번째 시집 『부동항』이 그 내용이 문제되어 일제의 의해 압수됨. 이 사건으로 옥중생활. 1946년 카프문인 중심의 해방 기념시집 『햇불』에 시작품 실음. 이하 생략.

19) 『중외일보』(1928. 11. 13~16)

흰 기!

돌돌 말렸다 풀렸다 하는 땅을 재는 자
어느새 새끼 쇠줄이 논바닥에 드러눕고
흙구루마는 영이와 풀싸움하던 그 언덕을 짓밟고 달아났다.

기어이 귀신이 산다는
은행나무 목이 달아나 그날 아침

마을의 할부지 할무니들은
『이젠 동리 사람이 모두 죽는다』고
땅을 두드리고 통곡하였다

- 김용호, <낙동강 -내 사랑의 강! 낙동의 강아!> 부분²⁰⁾

이 두 편의 낙동강 장시는 지역문학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거시적으로 볼 때 일제의 침탈에 따른 민족의 수난상을 보여준다. 낙동강을 낀 옥야천리의 땅을 빼앗기고 떠나야 하는 토착민, 동적의 토지 측량 사업으로 모두 죽었다고 통곡하는 낙동강 주민들은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수난받는 우리민족의 표상이다.²¹⁾ 특히 양우정의 <낙동강>은 민요적 형태를 취함으로써 민요의 민중요적 성격과 함께 전통적 정서를 유구한 강물 이미지로 형상화해 역사와 현실에 충실한 시로 평가할 수 있다.²²⁾ 때문에 이 시는 민족의 수난상을 낙동강이라는 지역적 자연물로 상징화해 내면서 지역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환기시켜 결과적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의식을 갖게끔 한다. 그것은 현실에 발 딛은 채 민족의 염원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구체적 저항시가 되게끔 하는 요소이자, 지역적 현실의 모순을 통해 민족적 현실의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비판적 지역주의문학의 전형이 되는 것이다.

20) 『사해공론』(1938. 9).

21) 민병욱, 『김용호의 서사적 세계와 서사정신』, 『한국서사시의 비평적 성찰』, 지평, 1987, 148-149쪽.

22) 서범석, 『양우정의 생애와 문학』, 『우정 양우정의 시문학』, 보고서, 1999, 205-211쪽.

2. 궁핍한 민중 현실의 고발과 저항의식

일제는 1920년대 들어 급속한 공업의 발달로 대량 농촌 이탈에 따른 자국내 경제구조의 모순을 식민지 조선의 농산물로 해결하기 위해 조선을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만들려는 계획으로 1920~1934년에 걸쳐 산미증식이라는 농업정책을 세운다.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자본주의의 존립에 필수적인 저임금 유지를 위한 미가정책·식량대책이자 조선을 식량 공급기지로 만들려는 식민지 농업정책이다. 이로 인해 식민지 조선은 일제의 더욱 노골화된 곡류 착취와 수탈로 양극화되면서 소수 친일지주만 더욱 큰 매판자본으로 화해 가는 반면 자영농은 소작농으로, 소작농은 더 이상 부칠 땅이 없는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양상을 보인다.²³⁾ 조선민중의 생활상은 눈뜨고 차마 볼 수 없는 비참의 극을 달한다. 이러한 때 지식인으로서 문인은 이 상황에서 그러한 현실의 부당함을 자각함과 동시에 일제식민정책의 잔혹함을 증언²⁴⁾하고 고발하는 역사적 목격자의 자리에 설 필요성이 있다. 다음과 같은 시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朝鮮에서 쌍파먹고사는 農軍이로세

(…)

달마지기논에서 한짐도못되는풀넙흘 비여온들무엇하나 속만상하지

肥料값, 씨값, 일군씩 으로내여쓴 돈은무엇으로갑나

地主에게는 무엇으로小作料를주나

免除— 그런소리말게 논을제이던 엇더케하게

昨年에도 뭇오가들어서 나락이적게났서도 小作料는뚝갓치마다가데!

그건제쳐초코도 대체이치위오는겨울을 무엇을먹고사누 응!

(…)

團結이다 團結!다맛이것만이우리를우리스사로 救야야줄最後의길인줄을—

農軍들이 알아내자 새世紀의行進曲에발을맞추며나아가자 나아가!

— (一九二九年의엇던農夫의 生存記의한토막으로) —

- 김병호, <天禍> 부분²⁵⁾

23) 한국민중사연구회 편, 『한국민중사』Ⅱ, 풀빛, 1986, 151-162쪽.

24) 증언문학이 사회역사적 현실에 개입하고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적 언술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찬영의 논문 『증언소설의 개념과 특성』을 참조할 것. 정찬영, 『한국 증언 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21-51쪽.

25) 『大衆公論 제4호』(1930. 3)

뒤스집할머니 날만새면은
 꼽으라진허리에 색기를감고
 낮(鎌)각고리두손에 산으로가오
 뒤스동산허리 꽃잔디우에
 수건(手巾)버서던지고 마른다리뺏고안저
 걸네갖흔치마자락 젓도록운답니다

「그놈의일본이 저산넘엔가
 저바다를건너서 일본엘가는가」
 알들한외동자식 소식물나죽겠다오

한각고리끌고는 한숨을 후유
 그리고고는눈물주룩, 뒤스산허리는
 뒤스집할머니의 눈물터랍니다

- 김정환, <뒤스집할머니> 전문²⁶⁾

2

착한동모 수남이 산길십리에
 아침마다 발발떨며 학교오드니
 월사금이 엮서서 쫓겨갓다오
 이모자 그냥둔채 쫓겨갓다오

3

학교마루 구석에 쓸쓸한모자
 보름이 지나도록 걸린헌모자
 그님자 수남이는 암바 따라서
 울며 불며 복간도로 집떠났다오.

- 이원수, <헌모자> 부분²⁷⁾

이 세 편의 시는 일제 하 식민지 현실의 궁핍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병호²⁸⁾의 시는 자연 재해로 인한 소출의 태부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6) 『조선시단』(1930. 1)

27) 『조선일보』(1930. 2. 20)

28) 1906년 경남 진주 출생. 1925년 경남 공립 사범학교 특과 졸업. 1925년 이후 조선공립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가락공립, 진주공립, 생림공립, 대산공립, 악양공립, 무계간이학교 교사 역임. 1925년 『조선문단』 4월호에 <안즌방이꽃>이 당선되어 문단 등단. 이후 『대중공론』, 『음악과 시』, 『전선』, 『비판』 등 좌익 경향의 잡지에 작품발표. 카프 맹원이던 엄홍섭, 양우정을 비롯 좌익 성향의 손풍산 등과

똑같이 걸어가는 소작료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아직 소설가로 등장하기 전 요산 김정환²⁹⁾은 당대의 경제적 궁핍에 의해 가족해체의 슬픈 사연을 시로 증언하면서 “그놈의일본이 저산넘엔가”라는 언급 속에서 은연중 이 궁핍의 원인이 일제의 수탈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당시의 시대현실을 비판적 사실주의 시각에서 살펴본 농민시라 할 수 있다.³⁰⁾ 이원수의 시는 일제의 수탈과 착취로 결국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쫓겨가는 유랑민의 아픔과 원한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이원수의 시는 ‘현모자’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일제의 잔혹한 현실을 폭로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형상적 사유라는 사회주의예술론의 미학을 잘 드러내고 있어 문학적 예술성과 함께 리얼리즘적 전형성을 획득하였다는 평도 가능하다. 이러한 일제 하의 궁핍과 원한의식은 김대봉³¹⁾의 <濁浪의 낙동강>이라는 시에서도, 박석정³²⁾의 <故鄕에도아와서> 등의 작품에도 잘 나타나고 있어 식민지 조선인들의 고통과 비탄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겠다.³³⁾

교분을 나눔. 이하 생략.

- 29) 1908년 경남 동래군 북면 남산리(南山里) 출생. 호는 요산(樂山). 1928년 동래고보 졸업. 11월 일본의 민족적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 조선인교원연맹 조직을 계획하였으나 일경으로부터 가택 수색을 받고 피검, 울산서에서 동래서로 이관되어 심문을 받음. 1930년 동경 조도전대학 부속 제일고등학교 문과 입학. 1931년 『조선시단』, 『신계단』 등에 시와 단편소설 발표. 이때 발표된 단편소설 <구제사업>은 작품제목만 실리고 내용은 전문 삭제당함. 1932년 일본서 귀향. 양산 농민봉기사건에 관련되어 피검. 1936년 단편소설 <사하촌>이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됨. 1940년 『동아일보』 동래지국을 인수하여 동래로 이사함. 지국일에 전념하던 중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피검됨. 이 시기부터 붓을 꺾음. 이하 생략.
- 30) 서범석, 『문혀있던 민족문학의 보배』, 『한국농민시』(고려원, 1993), 986-989쪽. _____, 『한국농민시 연구』(고려원, 1991), 198-207쪽.
- 31) 1908년 경남 김해 출생. 호 포백(抱白). 1927년 9월 13일 학생신분으로 『조선일보』에 <농부의 노래> 발표하여 작품 시작. 작품 경향이 일제에 착취당하고 있는 비참한 민족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편임. 1938년 『맥(鬮)』 동인. 1938년 시집 『無心』 발간. 이 시집에 대해 당시 카프 맹원들이었던 임화, 윤근강이 서평을 씀. 1943년 3월 발진티푸스로 사망.
- 32) 1911년 밀양 출생. 본명은 박해쇠. 1928년 문예동인사라는 문예단체에 가담했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8개월 간 부산형무소 복역. 1931년 11월 24일 카프노선의 연구단체인 일본 ‘동지사’의 일원이 됨. 1932년 코프 산하 ‘조선협회’의 의장, 기관지 『우리동무』의 편집장이 되기도 함. 1933년 초 일본 경찰에 피검되어 3년 간 옥중 생활함. 1945년 해방 직후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서기장.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 1946년 월북.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적 대변자로서 인식이 치열하여 가고, 시인의 체험마저 가미될 때 다음과 같은 극단적 저항의 목소리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나는- 조선인이다!
 나라도 없으면 돈도 없다
 즐거운 일이라곤 물론 없지만
 애처로운 눈물도 없애버렸다

도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일조융화(日朝融和)란 어떤 것인가!
 우리들은 너무나 속고 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은 누군가가
 조상 대대로 전해온 논밭은 누군가가
 결신들린 듯이 앗아가 버렸다
 (...)

어디로 갈 곳도 없고
 그저 행복을 염원하는 마음이
 영주할 땅이 있다고 기어이 믿고야 마는 마음이
 오늘도 오늘도 수백의 백의인(白衣人)을 태웠다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이 뚝- 소리를 낸다!
 마지막이 막장 끝인가 탄광에서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 위 작품은 일본잡지에 일본어로 발표된 작품임.)

- 김병호, <나는 조선인이다(おりや朝鮮人だ)> 부분³⁴⁾

적지에 들어가서 민족적 차별을 목도할 때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울분은 원한으로 발전할 것은 당연하다. 김병호의 이 시는 그 점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대다수 조선민중의 마음 속 원한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막장 끝’으로 표현된 조선의 한계상황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 버린’ 일제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을 표출한다. 특히 일본에서마저 조선

33) 여기에 언급되는 작품들은 김경복 편, 『근현대 부산·경남 항쟁문학 사료집 II -항쟁지』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 이하 언급되는 작품도 마찬가지다.

34) 『戰旗』(1929. 3). 박경수, 『일제 강점기 부산·경남 지역 시인의 일어서 발굴 및 재조명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3집, 한국문학회, 2003, 101-102쪽에서 재인용.

민중의 하층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관부연락선’을 비롯 기만적 근대화의 작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저항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은 이 시가 당대의 역사 현실을 깊이 꿰뚫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 압력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항행동이 막 일어나기 직전의 문학행위라 할 만하다.³⁵⁾

3.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투쟁의식

현실에 대한 정신적 자각과 울분은 곧잘 실천적 저항 행동으로 전환되기 일쑤다. 식민지 현실의 압력이 더 이상 인간적 삶의 영위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자각했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구체적 행동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행동을 추진케 해주는 이념이 어디에 연유하는가 하는 점을 따져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념은 행동의 강도와 지속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 정책은 1920년대 3·1운동으로 잠시 문화정책이라는 것을 펼쳐 보이나 그러한 정책은 기만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앞에서 보았던 산미증산계획 등의 제국적 정책으로 더욱 조선 민중의 권리를 약탈해갔다. 이러던 차 1920년대를 전후하여 도입된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도로 당시의 시대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주도적 사상으로 부상하면서 수탈과 착취의 심화로 고통받는 민중들로 하여금 조직적, 집단적 저항운동을 하게끔 추동하였다.³⁶⁾ 다음과 같은 시들이 바로 부산경남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한 시적 경향으로 일제에 대한 실천적 저항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농사를 지을 때는
거머리가 피를 빨고 턱업시빨고
농사를 지어두면

35) 박경수는 <나는 조선인이다>의 김병호의 시를 두고 “무산계급의 프롤레타리아 의식이 민족의식과 결합되어 일제하의 민족 전체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작품”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항적 면에서 좀더 이데올로기적 해석을 가미하고 있다. 시인의 전기적 생애나 시적 주제로 볼 때 충분히 해석 가능한 내용이다. 박경수, 앞의 논문, 102쪽.

36) 김준엽·김창순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청계연구소, 1986 참조.

땅님자가 아서가네 가지고가네

- 양우정, <農夫의 노래 -거머리와 지주> 부분³⁷⁾

부자영감논에서 놀고먹는 거머리

거머리 배를 찢너라

모심으는 아버지 피를빠는 거머리

거머리 뼈를 찢너라

- 손풍산, <거머리> 전문³⁸⁾

이 두 편의 시는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당시 ‘거머리’의 상징적 의미는 악질 지주의 약탈을 뜻한다. 하층 노동자의 노동력을 빨아먹고 사는 지주 계층은 타도의 대상이다. 그 점에서 이 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적 계급관에 기초한 사회주의 계열의 작품이다. 양우정과 손풍산은 각각 계급주의적 성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작가다.³⁹⁾ 양우정은 1928년경 카프 중앙위원이 되었고 계급주의 잡지 『음악과 시』를 1930년에 창간한다. 손풍산⁴⁰⁾도 사회주의자 양우정, 김병호, 엄홍섭 등과 교제하면서⁴¹⁾ 『음악과 시』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역시 일제 하 계급주의를 표방하는 잡지 『별나라』에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 점에서 위 두 편의 시는 당대 파시즘화되어 가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응하는

37) 『조선일보』(1930. 6. 14).

38) 『음악과 시』~제1권(1930. 8)

39) 손풍산의 전기와 작품세계에 대해서는 정상희, 『풍산 손증행의 길』, (『지역문학연구』7집, 경남지역문학회, 2001)을 참고할 만하다.

40) 1907년 경남 합천군 초계 출생. 본이름은 증행. 호 풍산(楓山). 대구고보 졸업. 1920년대 후반 사회주의 어린이 잡지 『별나라』에 작품 발표. 1945년 해방 직후 진주에서 발간된 계급주의 잡지 『민우』의 발간을 주도하고, 계급주의자로서 문학활동 재개.

41) 『음악과 시』~제1호에 손풍산이 양우정에게 보내는 편지와 엄홍섭이 김병호에게 보내는 편지가 실려 있다. 손풍산이 양우정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은 잡지 발간 요청과 원고료 이야기 등이 들어있는데 평서형 문체였다 반말로 일관하고 있어 친구지간의 막역함을 엿볼 수 있다. 엄홍섭이 김병호에게 보내는 편지도 평서형 반말로 일관되어 있다. 그런데 엄홍섭이가 김병호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속에는 손풍산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신고송의 이야기도 들어 있어 이들이 동료 작가와 사회주의 계급의식으로 상호 절친한 교유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들의 편지왕래』, 『음악과 시』~제1호, 35쪽).

길은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그 사상으로 무장하여 계급 운동을 벌이는 것밖에 없다는 당대 지식인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작품이다.⁴²⁾

그렇지만 이것들은 아직 분명한 사회주의 색채를 곧바로 드러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카프 열렬 맹원이었던 엄홍섭⁴³⁾과 권환⁴⁴⁾의 다음과 같은 시가 보다 사회주의 사상을 본격화하면서 일제에 대한 현실적 저항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누나야—
너와 나는 새世紀의 아들과 딸이다
왜 勇敢하게 일어나지 안느냐
보아라 오늘도 거리에서
우리들을 불으지안느냐—

누나야—
너와나는 새世紀의 아들과 딸이다
나아가자! 새거리로 새거리로
××의 물결속으로……
저벽저벽 勇敢한 발을맞추어
- 엄홍섭, <새 거리로> 부분⁴⁵⁾

42) 일제 하와 광복기 부산·경남 계급주의 시단과 성장, 투쟁 내용에 대해서는 박태일,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어문학 80집』, 한국어문학회, 2003)에 정리가 잘 되어 있다.

43) 1909년 충남 논산군 채운면 양촌리 출생. 1926년 경남도립사범학교 졸업. 1929년 KAPF 가맹. 『朝鮮文藝』1호에 시 <세거리로> 발표 등단. 1930년 4월 카프 중앙위원회 위원이 됨. 1931년 『群旗』사건 후 KAPF 이탈. 『별나라』, 『신소년』 등을 통해 아동문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1945년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에 가입. 1946년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 및 소설부 부원으로 활동. 1951년 월북.

44) 1903년 경남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 출생. 본명은 권경완(權景完). 1925년경 일본의 야마가타 학원 3년을 수료하고, 교토도오(京都) 제대 독문학과에 입학.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됨. 동경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예술동맹 동경지부에 관여함. 1927년 카프 동경지부에서 활동. 1929년 프로예술동맹원으로 정식 가입. 1931년 카프 제2차 방향전환의 중심인물로 활약. 1934년 『신건설』사건의 중심인물로 구속. 1943년 시집 『자화상』, 『탈간』. 1944년 시집 『윤리』, 『탈간』. 1945년 해방을 맞아 사회주의 문학단체인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동맹 결성. 1954년 작고.

동무들아 나 어린 소년공 동무들아
 ×× 아프다고 울기만 하지 말고
 ×하다고 ××만 하지 말고
 우리도 일른 힘차게 억세게 자라나서
 용감한 그 아저씨들과 같이
 수백만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
 맑은 ×를 ×한테를 ×니기만 하는 동무들
 이리가나 저리가나 ×을 × ……들을 위해서 ××자 응 ×우자!
 - 권환, <소년공의 노래> 부분⁴⁶⁾

이 두 편의 시는 노동자 계급에 입각한 부르주아 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때 부르주아는 일제를 비롯한 친일 지주나 자본가이며, 누나와 나, 소년공으로 대변되는 프롤레타리아는 가난한 우리 민족이다. 그런 점에서 부르주아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은 결국 일본제국주의의 타도이자 조선독립의 의미를 띤다. 즉 노동자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나, 민중들의 고통을 통해서 당대사회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⁴⁷⁾ 그 점에서 앞에서 말했듯 카프 맹원으로서 사회주의 계급의식에 입각한 문학운동은 우선적으로 계급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되었으나 그 진의는 민족 모순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 저항의 방략(方略)이다.

그 점에서 부르주아와 다른 노동자들의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는 엄홍섭의 <우리의 享樂>이나, 노동자들의 파업을 찬양하고 있는 권환의 <停止한 機械>, 소부르주아들로 하여금 환멸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가라거든 가거라>, 부르주아의 행복을 받을 때까지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머리를 땅까지 숙일 때까지> 등은 1930년대 당시 일제의 파시즘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민족이란 이름을 내세우지 못한 채 당대의 모순에 응전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알맞은 대안이다. 이 점은 이주홍⁴⁸⁾의 부르주아로 지칭되는 악독한 너희들과 노동자로 지칭되는

45) 『조선문단 창간호』(1929. 5)

46) 『카프시인집』(집단사, 1931)

47) 황선열, 『아름다운 평등』을 꿈꾸며 -권환론-, 『아름다운 평등』(권환 전집, 황선열 편), 전망, 2002, 472쪽

48) 1906년 경남 합천 출생. 호는 향파(向破).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가난과 사랑> 입선으로 문단 데뷔. 1929년 문예지 『신소년』~편집. 1931년 김병호, 양창준, 이석봉, 박세영, 손재봉, 신말찬, 엄홍섭 등과 『불멸-프로레타리아

가난한 부부의 대립을 통해 불평등한 현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새벽>이나 대립적 투쟁을 강조하는 <편싸흙노리> 등의 작품도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또한 1931년경 카프 동경지부 격인 ‘동지사(同志社)’에 가담한 밀양출신의 박석정 역시 <故鄕에도아와서> 등의 작품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心臟은 말리지고 뼈만 남은 내 故鄕”이란 표현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⁴⁹⁾

이러한 사회주의적 저항시는 1931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점차 조선이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화로 전락되면서 30년대 중후반에 들어 완전히 일제의 과시즘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된다. 그런 면에서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 말 암흑기에 이르기까지 국권상실기 저항문학은 항쟁의 선명성이 퇴조하고 운동성의 내면화로 특징지워진다. 대다수 시인들이 순수서정시의 길로 나아가고, 일부 극단적인 경우에는 친일적인 작품을 창작하는 데로 빠지기도 했던 것이다. 그 점에서 일제 말 암흑기와 관련하여 부산경남 저항문학도 침체된 양상을 띤다.

Ⅲ. 결론

이상으로 볼 때 부산·경남 국권상실기의 저항시의 흐름은 한국 문학사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 일제 하의 시대적 모순을 잘 드러내는 내용으로 전개됨을 살펴보았다. 특히 부산·경남이라는 토착적 지역 현실에 발붙인 구체적 저항시는 바로 우리 민족의 부자유와 불평등에 대한 폭로와 저항을 통해 진정한 자주와 독립의 소중한 꿈을 형상화해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것들의 주제는 크게 민족의식의 고취와 독립에의 염원, 궁핍한 민중 현실의 고발과 저항의식,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투쟁의식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주제들은 당대의 역사적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

동요집』발간. 1945년 사상불온 혐의로 투옥. 8월 해방을 맞아 출감되어 조선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 중앙집행위원과 아동문학부 위원 역임. 이하 생략.

49) 차민기, 『박석정의 삶과 문학』, 『지역문학연구』 제7호, 경남지역문학회, 2001, 147-148쪽. 박석정의 전기와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이 논문을 참조할 것.

적 정합성을 획득하고 있고, 무엇보다 현실 변혁의 구체적 실천성도 담보해 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권상실기 부산·경남 저항시의 흐름은 한국 근현대사의 민족사회의 모순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자 그것의 극복에 대한 대안적 인식과 실천을 제기하고 보여줌으로써 역사 사회 현실에 생동하는 문학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주제어 : 국권상실기, 부산·경남, 저항시, 지역문학, 민족의식, 민중의식, 계급 의식, 일제 강점, 카프

참고문헌

1. 자료

- 경남문학회, 『지역문학연구』1집~8집, 불휘, 1997~2003.
- 권환, 『아름다운 평등』(황선열 편), 전망, 2002.
- 구모룡 편저, 『근현대 부산·경남 항쟁문학 사료집 I -자료집』, 한글마당 다
큐스, 2003.
- 김경복 편저, 『근현대 부산·경남 항쟁문학 사료집 II -항쟁시』, 한글마당 다
큐스, 2003.
- 김용호, 『김용호 시전집』, 대광문화사, 1983.
- 박태일, 『두류산에서 낙동강에서』,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 박태일 편, 『김상훈 시 전집』, 세종출판사, 2003.
- 서범석 편, 『한국농민시』, 고려원, 1993.
- 서범석 편, 『우정 양우정의 시문학』, 보고서, 1999.
- 황선열 편, 『님 찾아가는 길 -독립군시가 자료집』, 한국문화사, 2001.
- 『한국현대시사자료집성』1~46, 태학사, 1982.
- 한양대학교 한양어문연구회, 『한국현대시자료대계』~31, 동서문화원, 1987.

2. 논저

- 강희근, 『경남문학의 흐름』, 보고서, 2001.
- 구모룡, 『근현대 부산·경남지역 항쟁문학사 개괄』, 『작가사회』~14호, 전망,
2003년 겨울.
- 김경복, 『한국 아나키즘시문학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8.
- 김윤식·김우종 외 공저,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 김준엽·김창순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청계연구소, 1986.
- 김지은, 『서덕출의 삶과 동시』, 『지역문학연구』~제3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
- 류종렬 편저, 『이주홍의 일제 강점기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2004.
- 민병욱, 『김용호의 서사적 세계와 서사정신』, 『한국서사시의 비평적 성찰』, 지
평, 1987.

- 박경수, 『일제 강점기 부산·경남 지역 시인의 일어서 발굴 및 재조명 연구』, 『한국문학논총』~제33집, 한국문학회, 2003.
- _____, 『일제 강점기 이주홍의 동시 연구』, 『한국문학논총』~제35집, 한국문학회, 2003.
- 박을수, 『한국 개화기 저항시 연구』, 성문각, 1985.
- 박태일, 『광복열사 박차정의 삶과 문학』, 『지역문학연구』~제1호, 경남지역문학회, 1997.
- _____, 『지역문학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제2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
- _____, 『경남지역 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어문학』~80집, 한국어문학회, 2003.
- 서범석, 『몰려있던 민족문학의 보배』, 『한국농민시』, 고려원, 1993.
- _____, 『한국농민시 연구』, 고려원, 1991.
- _____, 『양우정의 생애와 문학』, 『우정 양우정의 시문학』, 보고서, 1999.
- 성민엽, 『민중문학의 논리』, 『민중문학론』, 문학지성사, 1991.
-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89.
- 이지은, 『박산운 서사시집 『내 고향을 가다』에 대하여』, 『지역문학연구』~제7집, 경남지역문학회, 2001.
- 임중빈, 『부정의 문학』, 한얼문고, 1972.
- 정상희, 『풍산 손중행의 길』, 『지역문학연구』~7집, 경남지역문학회, 2001.
- 정찬영, 『한국 증언 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0.
- 차민기, 『박석정의 삶과 문학』, 『지역문학연구』~제7호, 경남지역문학회, 2001.
- 한국민중사연구회 편, 『한국민중사』~II, 풀빛, 1986.
- 황선열, 『‘아름다운 평등’을 꿈꾸며 -권환론』, 『아름다운 평등』(권환 전집, 황선열 편), 전망, 2002.
- 빅토르 츠메가치·디터 보르흐마이어 공저, 『현대 문학의 근본 개념 사전』(류종영 외 역), 숲, 1996.

<Abstract>

The Study on the Resistance Poetry of Busan & Gyeongnam Area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im, Kyung-Bok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resistance poetry against the historical events of the 20th century is to examine how literary people as Korean intellectuals coped with the actualities of life and the problem of the achievement of positive modernity.

Also, when observing this, looking particularly at local literature, it is expected to make it possible to foresee how to confront the 21st century national actuality as well as to study historical upheavals. As a result of studying historical developments in Busan and Gyeongnam Area resistance poetry with awareness of the above, it was found that resistance poetry appears to show different traits over the course of time.

First of al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as written with themes which would inspire national consciousness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aspiring to independence, demonstrating the impoverished reality of life, resistance consciousness and the class struggle. Authors include Yun-jae Lee, Won-su Lee, Byoung-ho Kim, Hwan Kwon, Pung-san Son, Woo-jung Yang, Yong-ho Kim and others.

It can be observed that the changes over time in Busan and Gyeongnam resistance poetry, while highlighting the different struggles of changing times, have given a voice to our common desire for liberty and equality and precious wish for democratization.

Key Words: Japanese colonial period, national consciousness, resistance consciousness, class struggle, Busan and Gyeongnam resistance poetry